

예비교원에 인권·성평등 가르치는 12개대 예산 지원

대학가 소식

동국대 영상대학원

2019년 후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는 영상대학원이 2019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은 최근 진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 융합이 가능한 열린 마인드, 그리고 기술 친화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4개 학과에 11개 세부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모집학과 및 전공은 ▲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제작학과 ▲멀티미디어학과 ▲공연예술학과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28일까지 영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선정
경인교대 등 교육대학 6개교
성신여대 등 사범대학 6개교
연 최대 2억3000만원씩 지원
2년 후 단계평가, 추가 2년 결정

예비교원들에게 인권과 성인지갑수성 등 민주시민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대와 사범대 12곳에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이들 대학에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새로 개발되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교육 강좌도 신규 과목으로 개발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재정지원 대학 12개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명단)

구분	교육대학	사업분야	사범대학	사업분야
1	춘천교육대	일반역량+연구중심	원광대	일반역량+연구중심
2	경인교육대	일반역량	경상대	일반역량
3	공주교육대	일반역량	성신여대	일반역량
4	대구교육대	일반역량	영남대	일반역량
5	전주교육대	일반역량	조선대	일반역량
6	한국교원대	일반역량	충북대	일반역량

대학명 가나다 순.

/자료=교육부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선정 대학은 춘천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대구교대·전주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 6개교와 원광대·경상대·성신여대·영남대·조선대·충북

대 사범대 6개교다. 전체 교육대 13개교 중 6개교, 46개 사범대 중 6개교다.

이들 대학 중 춘천교대와 원광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선정 대학 간의 연계 기능과 운영 성과 확산 등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 시민교육 동향 조사와 분석, 시민교육 공통기준 및 공동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방법 표준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9개 교육대학과 14개 사범대가 신청했고, 각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평가지표에 따른 서면·발표평가,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거쳤다.

이번 사업은 4(2+2)년간 추진된다.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연평균 1억3000만원 씩 총 18억원이 지원되고, 연구중심대학은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2년 후 단계평가 결과를 통해 나머지 2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교원양성대학이 민주시민교육 우수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9회 서울특별시장기 댄스스포츠 대회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재학생 팀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서울시장기 댄스스포츠 일반부 단체전서 우승

성신여대는 무용예술학과 재학생 팀이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제9회 서울특별시장기 댄스스포츠 대회 일반부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댄스스포츠 연맹이 주관한 이 대회는 학생·일반·장년·실버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돼 20팀이 넘게 경합을 벌였다. '모나아트댄스' 팀명으로 참가한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단체팀(김혜원, 정소희, 조은진, 김도에, 박민경, 이예은, 정애림, 김재영, 박현주, 전예진, 채해정, 최수빈)은 이번 대회 일반부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뽐냈다.

상명대

졸업 선배와 직무박람회

상명대학교는 지난 14일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상명대학교 졸업 선배와 함께하는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명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직무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다.

직무상담컨설팅에서는 상명대 졸업 후 외국계기업, 공기업, 금융, 제약·바이오, 무역,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24명이 1대1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에게 생생한 직무현장을 전달했다.

상명대 재학생과 타대생 등 8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1200여건의 직무상담이 이뤄졌다.

/한용수 기자

김포대, 한강신도시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

특성화·글로벌화 역량 강화
접근성 확대, 경쟁력 향상 기대

김포대학교는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유일의 대학으로서 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대 글로벌캠퍼스는 김포시 운양동 1329-9번지 일대에 9896.6제곱미터(2993.7평)에 연면적 1만5891.71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되고 3개 학과가 이전해 2021학년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다.

서울과 근접한 글로벌 캠퍼스의 지리적 이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다양한 학생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문화콘텐츠 창의혁신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특성화와 글로벌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포대 글로벌캠퍼스 조감도.

/김포대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무역협회(KITA)로부터 지식노하우 수출산업 3개 부문 중 '한류(K-팝) 교육 서비스 성공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글로벌케이컬처센터의 지식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K-컬처 특성화 프로그램'과 '글로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지역 내 유일한 대학으로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대학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현장학습-글로벌 인턴십, 해외 취업 지원을 확대해 해외 취업자수 상위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청사진을 마련, 국내 청년 취업난 극복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포대 관계자는 "글로벌캠퍼스는 국내외 K-컬처 현장중심교육 허브로서 지역 문화 발전과 국내외 K-컬처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우리 아이 인공지능으로 올바른 독서습관 기른다"

맞춤 독서 솔루션 'AI독서케어'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독서 역량을 진단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 맞춤형 독서 솔루션 'AI독서케어'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AI독서케어는 웅진씽크빅의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독서 솔루션으로 모바일로 정기적인 진단과 결과 확인도 가능해 독서 역량 성장 추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AI독서케어는 'AI독서진단', 'AI독서코칭', 'AI독서플랜'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AI독서진단은 웅진씽크빅 북클럽 회원 및 진단 참여자를 통해 취합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녀의 독서 능력과 흥미,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별 독서 역량을 파악한다.



독서능력 분석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 방식과 크게 차별화 했다. 독서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인지 요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유지에 필요한 정의적 요인인 '독서흥미'와 능력을 높여주는 심리적·물리적 환경요인까지 함께 분석돼야 한다.

AI독서코칭은 독서 패턴에서 습관까지 지속적으로 취합된 데이터를 다면적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독서 방향을 제시한다. 독서 편식을 낮추주는 '균형 독서 분석', 독서 어휘량을 분석한 '누리·교과 어휘 분석', 완독률, 반복률, 독서속도를 보여주는 '독서 습관 분석' 등 카테고리 나눠 주 단위, 월 단위 데이터로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좋은직장 = 성공 NO'... 세대별 직장 가치관 상이

베이비붐 73% "좋은직장 필수"
밀레니얼 "즐거이는 일이 최우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건일까. 이에 대해 세대별 인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좋은 직장이 성공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세대별 성인남녀 4843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73.5%가 '그렇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후세대(1940년대~1950년대 초반생)는 70.2% ▲386세대(1960년대생) 55.0%

▲X세대(1970년대생) 51.9%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을 일컫는 ▲밀레니얼세대들은 46.4%만 '그렇다'고 답해 직장에 대한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세대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견해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후세대의 경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31.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베이비붐세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가족과 화목한 삶'과 '돈을 많이 벌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꼽았다. 반면 386세대(62.1%)와 X세대(66.2%)의 경우 '큰 걱정 없이 안정된 수입으로 가족과 화목한 삶'을 선택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는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성공적이다'(27.5%)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차이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세대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후세대의 경우는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다를 때'와 '회식 등 친목 도모 모임에 대한 견해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베이비붐세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를 때'와 '개인주의 성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는 '조직 중심 경향'과 '업무방식이 다를 때'라는 답변이 많아 다른 세대와 세대차이를 느끼는 순간에 차이가 있었다.

/한용수 기자